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 선정

김조자 연대 명예교수 – 이애주 전 병원간호사회장

김 조 자

이 애 주

전 세계 간호사들의 최고 영예인 제46회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기장 수상자로 김조자 연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와 이애주 전 병원간호사회장이 선정됐다.

나이팅게일 기장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 여사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12년 제정됐다. 나이팅게일 탄생 100주년인 1920년 제1회 수상자를 선정했다. 국제적십자위원회(ICRC)는 2년마다 전 세계에서 50명 이내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이팅게일 기장을 받은 간호사는 올해 수상자를 포함해 모두 57명이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기념식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조자 연세대 간호대학 명예교수(전 대한간호협회장·76세)는 간호교육 수준향상과 간호전문직 발전을 위해 헌신했으며, 국내외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봉사하는 삶을 실천해왔다.

38년간 연세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양성 및 간호교육 발전에 기여했다. 제31대 대한간호협회장을 지내면서 한국 간호 및 보건의료정책 발전에 기여했고, 한국간호교육평가원 초대원장을 지내면서 간호교육평가의 기틀을 마련했다.

기독교 정신의 섬기는 리더로서 모범을 보이며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다. 퇴직 후 캄보디아 라이프대 총장으로 봉사하면서 개발도상국에 현대적 간호교육의 씨앗을 뿌렸다. 국제협력단이 지원하는 연세대 간호대학의 연구사업인 방글라데시 최초 간호대학원 설립 프로젝트 교육과정개발 총괄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한국성서대 간호학부 초빙교수를 맡고 있다. 간호학술상, 과학기술 우수논문상, 녹조근정훈장 등을 수상했다.

○…이애주 전 병원간호사회장(전 국회의원·71세)은 39년간 병원간호사로 간호현장에 근무하면서 환자의 회복과 안전을 위해 헌신했으며, 국회의원 활동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했다.

간호사의 손끝에서 환자에게 전해지는 따뜻한 직접 간호의 향상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고 간호를 발전시키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간호현장을 지켰다. 서울대병원 간호부장과 가천대 길병원 간호부장을 지냈다.

병원간호사회장을 지내면서 탁월한 지도력으로 간호실무와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 병원간호를 발전시켰다. '간호방법 지침서'를 발간해 전국의 간호사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을 지내며 간호발전에 기여했다.

제18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동안 파독간호사 평가사업을 펼치고 보고서를 편찬해 간호역사를 재조명하고 간호사의 위상을 높였다. 입법활동을 통해 간호 정책 및 제도 개선과 국민건강 향상에 힘썼다.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해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했다. 국정감사 우수의원상, 대한민국 헌정우수상 등을 수상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koreanurs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보험수가 협상에 앞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6개 의약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내년 보험수가 협상 시작

건보공단, 간협 등 6개 의약단체장 간담회

2018년도 보험수가 계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성공적으로 체결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6개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5월 10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병원협회 홍정용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수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박완수 수석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이 참석했다.

김옥수 간호협회장은 "간호사 인력확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간호사의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수가가 제대로 책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경우 입원료에서 간호·간병료가 분리돼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면서 "간호행위에 대한 가치를 수가로 인정하는 등 간호수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선진국에서는 조산원이 활성화돼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수가, 저출산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조산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산수가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공단은 의약단체장 간담회에 이어 각 의약단체별로 수가협상을 진행한다. 수가협상 마감시한은 5월 31일 자정까지다.

정규숙 기자 kschung@

KNA 면허신고센터 콜센터 1644－1755

송용숙 대전시간호사회장, 대전시 명예시장 위촉돼

송용숙 대전시간호사회장이 대전시 보건복지여성분야 명예시장으로 위촉됐다.

대전광역시(시장·권선택)는 '제6대 명예시장'을 5월 10일 위촉했다. 경제산업, 과학,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여성, 환경녹지, 교통건설, 도시주택 등 주요 시정 8개 분야에 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물을 추천받은 후 시정조정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선정했다.

보건복지여성분야 명예시장으로 선정된 송용숙 대전시간호사회장은 올해 10월말까지 6개월간 활동한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명예시장의 핵심 역할은 진정한 시정의 메신저로서의 활동"이라며 "현장의 소리를 듣고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며 문제해결의 대안을 내놓는 등 시민의 의견을 효율적으로 시정에 담을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박하나 간호사, 손글씨로 중환자에게 삶의 희망 전해

중환자실 입원환자에게 손글씨로 삶의 희망을 전달한 간호사의 소식이 알려졌다. 미담의 주인공은 박하나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간호사.

박하나 간호사는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후 우울해하는 70대 환자를 위해 메모지에 '울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와 같은 격려메시지를 손글씨로 써서 보여줬다.

이 환자는 평소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의료진은 필담을 통해 의사소통을 했다. 박하나 간호사의 정성어린 손글씨에 용기를 얻은 환자는 적극적으로 치료에 임했고,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환자는 퇴원 전에 박하나 간호사에게 전한 감사편지를 통해 "중환자실에 입원 당시 유서까지 준비했다"면서 "박 간호사가 써준 '용기 내세요'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한 마디 한마디가 너무 감명 깊었고, 살아갈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박하나 간호사는 "너무 우울해하셔서 힘내라고 말씀드렸을 뿐인데 감사편지까지 받게 돼 놀랐다"면서 "모든 의료진의 노력과 환자분의 의지 덕분에 건강을 회복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최수정 기자 sjchoi@

간협, 대선 정책활동 적극 펼쳐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 … 간호현안 담은 정책제안서 전달

〈1면서 계속〉

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선거기간 중에 간호현안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하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대한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행복한 삶을 위해 간호현안과제를 해결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국민보건 향상과 보건의료정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보건복지 직능대표자 정책간담회에도 참석했다.

정책협약식 및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은 '간호협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면서 간호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방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하는 데 주력했다.

간호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이 서명한 '정책협약서'에는 간호수가 개선,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사 확보 및 수급 불균형 개선책 마련, 간호사의 충분한 배치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산, 전문간호사 활용 등 간호의 전문성 향상 및 간호사업의 독립성 확보, 보건소 방문간호 등 지역사회 간호분야 활성화, 공중보건장학제도 실시 및 공중보건간호사제도 도입 등이 담겼다.

'간호협회 정책제안서'에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간호법·제도 발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성공적 정착 △간호사 이직 방지 및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지역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방문간호분야 활성화 △의료취약지 주민을 위한 간호사 인력 확보 등의 정책과제와 개선방안이 제시됐다.

세부내용으로는 간호법 제정, 간호수가체계 개선, 노인의료비 절감을 위한 지역사회 간호전달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내 간호정책 전담부서 신설, 간호·간병료 수가 인상,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종합대책 마련 등이 담겼다.

또한 병원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야간전담간호사제도 활성화, 간호사 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한 표준근로지침 마련, 지역간 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표준임금가이드라인 마련,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방문간호 활성화,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담당 비정규직 간호사의 정규직화, 가정간호사업소 확대 및 수가 인상,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등을 건의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전국 간호사 모임'의 간호사 5046명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적폐를 청산하고 간호사의 처우와 근로환경을 개선할 적임자로 문재인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정규숙 기자 kschung@

첨단의료복합단지 제3차 종합계획 수립

보건복지부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보건의료산업 글로벌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3차 종합계획(2017~2019년)을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는 글로벌 신약·의료기기 개발에 필요한 효능·성능 평가 및 최적화, 시제품 제작 등을 서비스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조성됐다.

제3차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은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과 제품화 지원 등을 통해 성과를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첨단복합의료재단의 자립화를 위해 운영을 효율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지자체·민간은 2019년까지 연구개발비 등으로 약 4400억원을 투입하고, 연구인력도 현재 400여명에서 600여명 수준으로 연차별로 충원할 예정이다.

주혜진 기자 hjjoo@

간호사신문 |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6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